

제426회국회
(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제 1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5년7월1일(화)

장 소 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2210977)
 가. 교육부 소관

상정된 안건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2210977) 1
 가. 교육부 소관

(11시04분 개의)

○소위원장 조정훈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2210977)

가. 교육부 소관

(11시05분)

○소위원장 조정훈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교육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 방법은 아마 아시겠지만 지난 27일 전체회의 때 위원님들의 대체토론이 있었고 이후 서면질의를 반영하여서 저희 상임위 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한 자료를 중심으로 심사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면 자료 순서에 따라서 전문위원의 보고와 정부 측의 입장을 듣고 위원님들의 토론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진행해도 되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최선영 최선영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자료를 참조해 주시고요.

우선 목차 부분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자료는 중감이 같이 있는 사업 1건, 중액 의견이 있는 사업 19건, 부대의견 9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감 의견이 같이 있는 사업, 2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정책기획관 소관입니다.

국립대학 시설확충과 관련하여 4개의 내역사업이 있습니다.

가 항목 보수사업에 대해서는 감액 의견이 있고 나·다·라에 대해서는 증액의견을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셨습니다.

먼저 가 항목은 보수사업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보수 계획이 없기 때문에 균분하는 증액은 추경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번 추경 증액분에 대해서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나 부분은 의대여건개선사업과 관련하여 9개 국립대 의대 건물의 리모델링 등 추진을 위해서 289억 78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3페이지,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 내역사업 정책사업과 관련하여 스프링클러 법적 설치 대상 기숙사에 대해서 설치가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231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마지막으로 라 부분은 국립대 시설 확충과 관련하여 경북대, 순천대에 60억 원 증액이 필요한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정부 측 의견 말해 주십시오.

○교육부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교육부 기획조정실장 박성민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립대학 시설확충에 대해서는 보수사업 추경 증액분 전액 감액 의견에 수용이 어렵습니다. 국립대학 보수사업은 대학 특성상 방학 중에 공사가 집중됩니다. 그래서 25년 예산은 연내 집행이 가능합니다.

검토보고서에 보수사업 집행률이 46.2%로 낮은 것으로 그렇게 돼 있는데 5월 말 기준으로는 64.2%로 상당히 집행률을 끌어올렸고 방학 중에 상당 부분 또 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7개 대학 수요조사 결과 노후시설 개선 수요가 1.2조 원으로 그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국립대학의 시설이 낙후된 곳이 많이 때문에 학생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번 증액 추경이 꼭 필요합니다.

나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립대 의대가 신설하던 것들이 이번에 감액 추경도 올라와 있는데요. 작년에 교육위에서도 국립대 의대를 방문했었습니다마는 의대가 특히 시설이 낙후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에 국립대 시설비로 일괄 주면 또 다른 데로도 많이 가서, 국립대가 상대적으로 소외된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에 의료 사태 이런 것들도 감안하고 또 증액하려다가 감액되는 상황도 감안해서 위원님께서 의대 쪽에 특별히 각별히 시설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동의합니다. 의대 학생들한테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289억 원 증액이 꼭 필요합니다.

다번입니다.

친환경 에너지 절감을 위해서 또 기숙사 안전을 위해서 기숙사 스프링클러 설치 예산

증액 의견도 수용합니다.

그다음에 라빈 경북대하고 순천대에 특별히 증액을 말씀주셨는데 경북대 기독센터 생활관 증개축, 순천대 스콜라 광장 조성 증액 의견을 수용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그러면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준 위원 제가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소위원장 조정훈 박성준 위원님.

○박성준 위원 보수사업과 관련해서 이게 전액 감액이 된 거잖아요, 가번에 대해서요. 맞지요?

○교육부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예.

○박성준 위원 이 부분은 정부 측에서 수용이 곤란하다는 입장인데, 이것 안을 우리 조정훈 위원장님께서 내셨는데 보통 보수 계획에 일정 비율은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반영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소위원장 조정훈 큰 틀에서 제가 예결 위원이기도 하고 또 논의하겠지만 제 입장은 위원장이 아니라 위원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지금 이게 추경이지 않습니까, 본예산이 아니고. 그리고 32조 중에 22조가 국채 발행을 통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기본적으로 빚을 내서 지출할 가치가 있고 중요성이 있고 시급성이 있느냐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 국립시설 확충 예산이 지금 본예산에 있고 그다음에 추경에서 더 증액을 요청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것을 깎자는 게 아니라 증액을 요청한 상태고요.

저는 여러 가지 것들, 이게 수용이 가능하다면 좋습니다만 제가 제안드린 이유는 이따가 저희가 논하겠지만 맞춤형 국가장학금이라고 저소득층 학생들이 일하면서 받는 근로장학생 장학금 전액이 1000억이 삭감됐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보수사업 국립대 시설확충이 기재부가 발표한 추경안의 어디에 들어있느냐면 민생 경기 진작 항목으로 들어있지요, 실장님?

○교육부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예.

○소위원장 조정훈 교육 목적이기도 하지만 이게 돈을 써 가지고 민생을 살리겠다 이런 것에 지금 국립대학교 시설보수를 하겠다고 한 건데 돈이 여유가 있어서 그걸 하면 저는 말리지는 않겠지만 근로장학생들 장학금까지 지금 1000억이라는 돈을 삭감하면서 까지 돈을 다 뽑아내야 되는 상황인데 굳이, 이게 보니까 보수사업이 노후된 냉방기기 에어컨 고치고 뭐 이런 거지요?

○교육부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이게 과연 우선순위가 맞는가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박성준 위원님.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제가 패키지로 제안한 겁니다.

○박성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문수 위원 관련해서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소위원장 조정훈 예.

○김문수 위원 이게 처음부터 조정훈 소위원장님 주장이라 너무 부담스러운데.

근로장학금을 깎는다. 우선 그냥 들으면 어떻게 그럴 수 있나 하지만 2025년도에 근로

장학금이 6274억 원, 그런데 이게 24년도에 4600억에서 엄청 많이 증액을 어마어마하게 시킨 겁니다. 그래서 너무 증액을 많이 시켜 놓다 보니까 불용 가능성이 매우 높아져서 어차피, 안 주려고 그런 게 아니라 사용이 안 될 가능성이 높은 그 금액만큼은 깎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것 작년에 우리가 토의를 할 때 그 이야기가 나왔었지요. 그렇지요? 나와 가지고 이게 많다 적다 이랬는데 교육부장관 입장에서 상당히 충분히 이것을 고려해 가지고 계산해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해서, 여야가 합의해서 이야기해 줬던 것 아닙니까?

○교육부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예.

○김대식 위원 그 금액이 김문수 위원님 말씀한 대로 불용 금액이 많이 나옵니까?

○교육부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담당 과장이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부청년장학지원과장 이양주 작년에 저희가 2025년 본예산 반영을 할 때 학생 수요와 대학의 수요를 반영했습니다. 당시에는 학생 수요가 연간 한 60만 명 가수요가 있었고 학교 입장에서도 그런 가수요를 고려해서 최대한 늘렸을 때 학교가 운영 가능한 인원이 한 23만 정도 된다라고 저희가 데이터를 확인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23만 전체를 늘리면 말씀하신 대로 전년 대비해 가지고 한 40% 이상 예산이 증액되는 거다 보니까 그렇게까지는 어렵고 저희가 20만 정도 수준은 가능하다 싶어서 본예산 반영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초에 그런 예산은 반영이 됐고 학교 입장에서는 학생들의 수요도 있지만 어쨌든 근로장학금 자체가 근로지를 발굴을 해야 되고 그 근로지에 맞는 학생들을 매칭하는 그리고 근로를 할 때 학생들이 잘 근로를 하는지에 대한 관리 체계 자체가, 모든 것들이 맞아떨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인원, 즉 매년 발생하는 불용이 아니라 연간 해서 불용이 없이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그런 커파서티를 내라고 올해 3월에 요청을 했을 때 총예산 대비 한 87% 수준을 학교에서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반영한 금액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러면 87%면 한 13%가 불용이 되네요?

○교육부청년장학지원과장 이양주 예, 저희가 그렇게 연간으로 학교에서 내라고 했을 때……

○김대식 위원 그러면 그 돈이 얼마나 됩니까, 13%?

○교육부청년장학지원과장 이양주 그게 지금 저희가 감액 추경 요청드린 1000억 규모 정도 됩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저는 교육위 상임위고 또 다들 국회 절차를 아시니까, 저희가 증액 또는 감액을 하면 이 상임위, 소위 상임위에서 중요한 건 감액입니다. 감액 결정을 하면 예결위 가서 살리는 게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런데 증액 결정을 하면 예결위에서 받아 주면 받아들여지는 거고 예결위에서 안 받아 주면 안 받아지는 상황입니다. 위원님 다들 인지하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제가 실은 예결위에서도, 교육위 상임위에서 예결위에 있는 게 여야 합쳐서 민주당의 고민정 위원님 그리고 국민의힘의 김대식 위원님 그리고 저, 이 3명이 교육 상임위 출신

으로 예결위에서 올해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실은 보수사업 삭감을 굳이 하려고 했던 이유가 제일 큰 틀에서, 30조 예산에서 추경 금액이 더 늘어날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어제 예결위 전체회의를 봤을 때 민주당 위원님들 잘 아실 거고 결국은 트레이드오프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시설비를 좀 낮추고 장학금을 맞추는 게 맞다. 왜냐하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에 15만 명 기준이고 올해 20만 명 기준이지만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니까 학자금지원시스템에 이근로장학금을 신청한 사람들이 60만 명이나 됩니다. 맞지요?

○교육부청년장학지원과장 이양주 예.

○소위원장 조정훈 그러니까 저희가 작년에 15만 했고 올해에 20만 명 예산 잡아 놨는데 이걸 하겠다고 신청한 사람들은 60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아주 솔직히 얘기하면 근로장학생 운영에 대한 부실이 좀 논쟁이 돼서 이런 것에 대한 부담을 느껴서 확장하는 데 조금 소극적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제도 기재부차관이 얘기한 것처럼 수요가 없어서 이걸 깎았다는 것은 저는 수용이 안 되고요. 열심히 노력해서, 학생들이 열심히 일해서, 이것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저소득층 학생들이 근로해서 받아 가는 돈이고 또 단가도 높더니 학내에서는 1만 30원, 거의 최저임금 수준의 돈입니다. 이걸 깎아서 에어컨 고치는 데 쓴다, 전 이것은 좀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원하시면 다 증액하는 것도 방법인 것 같습니다. 시설확충도 증액으로 그냥 두고 또 동의해 주시면 국가장학금 지원도 증액해 놓고 예결위에서 다뤄 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 어떠십니까?

굳이 여기서 저희가 삭감 결정을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동의해 주시면.....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1번 시설확충에서 가, 전액 삭감은 제가 철회하도록 하겠고 그다음에 나·다·라는 교육부가 수용하는 거니까 이대로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박성준 위원 위원장님, 저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소위원장 조정훈 예.

○박성준 위원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수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죽죽 넘어가고 쟁점되는 부분만 토론해서 딱 매듭을 짓는 게 어떠십니까?

○소위원장 조정훈 좋습니다. 어제 문정복 위원장님이 스피드라는 단어를 쓰셨는데요 스피디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태 위원 위원장님, 저 질문 하나만 해도 될까요?

○소위원장 조정훈 예.

○김용태 위원 나번 항목이요, 질문 하나만 하고 싶은데요.

9개 국립대학 의대 건물 49개 동 중 성능개선 14개 동, 부분리모델링 5개 동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렇게 되면 해당되는 대학이 어디인지 좀 알 수 있을까요?

○교육부기획조정실장 박성민 9개 전체 대학들에 다 협력이 들어갑니다.

○김용태 위원 국립대 9개 다 들어가는 건가요?

○**교육부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예. 국립 의대에 해당되는, 이번에 증원하려고 했던 곳들이……

○**진선미 위원** 제가 알려 드리면 충남·전북·전남·경북·부산·강원·충북·경상·제주의 대입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의대 중에 국립대는 예외 없이 다 들어가는 거지요?

○**교육부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예.

○**소위원장 조정훈** 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해 주시지요.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최선영** 자료 5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내용은 정부가 수용한 의견이기 때문에 일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1번 항목 증액 의견입니다.

국립부설학교 역량강화 관련하여 공주교육대학교 부설초등학교 건물 외벽 방수공사 관련된 10억 증액 의견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두 번째 사항, 인문사회 기초연구(R&D)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석사과정 연구장려금 관련하여 신진연구자 양성을 위해서 24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고, 사업의 산출내역을 보시면 200개 과제를 추가로 수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지역인재정책관실 소관의 지역인재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고교-대학 연계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현재 4개 시도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을 8개 시도로 확대하기 위해서 14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내용입니다.

연번 4번입니다.

성인 문해교육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현재 세 곳만 운영 중인 디지털 문해교육 한글햇살버스 사업을 확대하기 위하여 12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부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정부 측 의견은 지금 수석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전체 사업에 수용합니다.

지금 자료에 한 가지 고칠 부분이 있는데 지역인재정책과장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고칠 내용이 몇 페이지입니까?

○**교육부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지역인재 육성지원 사업인데요.

○**교육부지역인재정책과장 박성하**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16페이지?

○**교육부지역인재정책과장 박성하** 예.

○**교육부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우리 자료와 다르네요.

○**소위원장 조정훈** 지금 저희 8페이지까지 진도 나갔는데요.

○**진선미 위원** 사업의 이름을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교육부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지역인재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그러면 7페이지인 것 같습니다.

○교육부지역인재정책과장 박성하 죄송합니다.

지역인재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지금 보고해 주신 바와 같이 동 사업의 현재 하고 있는 물량을 2배로, 4개 시도에서 8개 시도로 물량 증액을 할 경우에는 단가에 따르면 14억이 아니라 17억 2000만 원 증액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해당 위원님 실에 확인했을 때 이 부분에서 약간 내역 산출에 있어서 숫자에 곱하기 해야 되는 학교 수 등이 좀 누락이 되면서 이 금액이 잘못 산출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4억이 아니라 3억 2000만 원 더해서 17억 2000만 원이 되어야 현재 4개 시도에서 8개 시도로 확대를 할 수가 있고요. 세부적인 단가에서 누락이 됐던 오기 금액은 전문위원님 실에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그러면 교육부는 17억 2000도 수용이라는 것이지요?

○교육부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예.

○소위원장 조정훈 김문수 위원님 이의 없으시지요?

○김문수 위원 예.

○소위원장 조정훈 잘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8페이지에서 질문 하나만 하면, 한글햇살버스 사업 좋은 것인데 지금 현재 세 곳만 운영 중인데 8개로 늘리는 것인데 이 8개가 어디입니까? 광역만 해도 17개고 기초까지 하면 수백 개인데 왜 8개만 더 늘리지요?

○교육부평생학습지원과장 이진영 평생학습지원과장 이진영입니다.

지난해부터 시범으로 3개 시도가 됐고요.

○소위원장 조정훈 그게 어디지요, 시도가?

○교육부평생학습지원과장 이진영 서울 전북 제주입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이번에 8개는 어디지요?

○교육부평생학습지원과장 이진영 이번에 시도 전체를 다 하는 것은 아니고 신청을 받아서 수요가 있는 곳을 배정을 하는 것이고요, 현재 8개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그러면 신청한 광역 지자체 중에 안 해 주는 데는 없게 되는 겁니까, 추경을 하면?

○교육부평생학습지원과장 이진영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신청 안 했다는 뜻이지요?

○교육부평생학습지원과장 이진영 그것은 내년에 또 다 하려고 합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그 나머지 광역이나 기초는 신청 안 한다는 것이지요?

○교육부평생학습지원과장 이진영 예.

○소위원장 조정훈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더 이상 토론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가도 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최선영 자료 9페이지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아까 잠깐 말씀하시기는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5번 항목,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관련 사항입니다.

두 가지 내역이 있는데요. 먼저 가 항목은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과 관련하여 저소득층 대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서 이번에 감액된 추경안에 대해서 100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50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각각 있었습니다.

나번 항목은 주거안정장학금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신청자 수에 비해서 탈락자가 많아서 집행이 부진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탈락 원인 분석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며 이번 추경에서 감액된 100억 원에 대해서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그냥 수용하시고 넘어가시지요?

○**교육부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예, 다 수용하겠습니다.

주거안정장학금은 철회로 말씀을 주셨다고 들었습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그러니까 증감에서 원래 지금 추경의 이 항목,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액이 4400억 감액이잖아요?

○**교육부청년장학지원과장 이양주** 아니, 1000억입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여기 4400억으로 나와 있는데?

○**교육부청년장학지원과장 이양주** 지금 말씀하신 소위자료에는 근로장학금만 표시가 되어 있고 해당 금액은 100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그러니까요. 2645-300에서 4400이고 여러 개로 구성돼 있는데, 이 감액 중에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 항목에서 1000억은 다시 증액하고 그리고 100억은 주거안정자금에서 지원해서 1100억이 다시 돌아가니까 감액이 4400에서 3300이 되는 겁니다.

○**진선미 위원** 박성준 위원님은 철회한 것으로 아는데요?

○**소위원장 조정훈** 철회하셨습니까?

○**박성준 위원** 예.

○**소위원장 조정훈** 그러셨습니까?

그러면 1000억……

○**교육부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이 좀 정리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박성준 위원님은 철회하셨습니다.

○**교육부청년장학지원과장 이양주**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항목은 근로장학에서 조정훈 위원님께서 1000억 그다음에 김용태 위원님께서 500억 원복하는 증액하는 그 의견만 남아 있습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그러니까 1000억과 500억을 합치라는 소리는 아니고……

○**교육부청년장학지원과장 이양주** 맞습니다. 각각 있습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큰 것으로 해 가지고 감액액 중에서 1000억을 다시 복귀시키자는

겁니다.

○**교육부청년장학지원과장 이양주** 예.

○**소위원장 조정훈** 이해됐지요?

이의 없으시면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0페이지.

○**수석전문위원 최선영** 자료 10페이지,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번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콘텐츠 개발 및 활용 활성화와 관련하여 K-MOOC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서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며 각각 50억 원과 40억 원 증액의 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부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정부 측 의견은 수용입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진선미 위원님 50억 김문수 위원님 40억인데, 50억으로 갈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50억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선영** 11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자치안전정책관실 소관입니다.

이 부분은 교부금과 관련된 사항으로 보통교부금과 지역현안특별교부금 등 4개 사항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이 내국세 및 교육세 세입 감소로 인해서 감액분을 하는 것으로 들어왔는데요. 이에 대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취지에 따라서 다음다음 회계연도까지 교부금을 조절할 수 있으므로 추경 감액분에 대해서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동일한 취지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교육부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지난주 금요일 전체회의에서도 이 안건이 논의가 됐었는데 이번에 감액을 해도 되고 차차년도에 다시 정산을 해도 됩니다마는 많은 위원님들의 논의가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국회의 추경예산안 심의·확정 권한을 존중해서 그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그러니까 지금 저희 교육상임위 차원에서 이 교부금을 다시 원복시키는 것에 동의하신다?

○**교육부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종합적인 검토가 조금 필요합니다. 정부에서는 감액안을 이미 정부안으로 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정부안을 위원님들께서 수용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마는 지난 금요일 전체회의에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으셨고 해서 위원님들 의견

에 따르는 것으로 그렇게 정부안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진선미 위원 이 문제는 예결위에서 한 번 더 논의를 하는 것을 거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그러면 예결위에 올리는 차원에서 교육위 차원에서는 수용해서 올리면 어떨까요? 그래서 복귀하는 것으로, 그래야 논의가 시작되지 잘라 버리면 논의 자체가 안 되니까.

동의하시지요, 위원님들?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전문위원 윤상열 13페이지, 교육복지늘봄지원국 예산입니다.

12번 장애학생 교육지원 세부사업 관련해서는 내역사업인 장애아 교육지원 관련해서 국립공주대학교 부설 직업분야 특수학교가 인건비가 편성되지 않아서 필요하다고 지원인력 인건비 6억 7700만 원 증액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부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정부 측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전문위원 윤상열 14페이지, 영유아보육료 지원은 어린이집 영유아, 0세 1세 2세 영유아에 대해서 부모한테 지원이 나가는 것인데 지원단가를 10% 인상해서 1916억 6800만 원 증액하자는 의견과 5% 인상해서 1130억 8500만 원 증액하자는 두 가지 의견이 지금 있습니다. 두 의견 중에 결정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부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정부 측은 전년 대비 5% 수준 인상 1130억 원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올리면 좋겠지만 국가재정 상황이나 또 작년 물가가 1.9%, 최저임금이 1.7% 상승했기 때문에 5% 수준만 증액해도 상당히 큰 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는데, 실은 지금 우리가 논의하는 것은 추가경정예산에서 증액을 하는 것인데 25년 본예산에 이 똑같은 항목이 목적예비비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교육부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예.

○소위원장 조정훈 그러니까 목적예비비를 쓰면 되는 것 아닙니까?

○교육부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보육료는 아닙니다. 무상……

○소위원장 조정훈 무상교육이 되어 있고.

○교육부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예.

○소위원장 조정훈 그러면 보육료는 5% 인상으로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고민정 위원님이 안 계시지만 5% 인상으로 정리해서 넘어가겠습니다.
15페이지.

○전문위원 윤상열 15페이지, 유아 단계적 무상교육·보육 지원은 만 5세부터 무상교육·보육을 실질적으로 하기 위해서 신규로 편성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1288억 5200만 원을 증액해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부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예산 증액 의견을 수용합니다. 이재명 정부 공약에도 27년까지 유아 3~5세 무상교육·보육 완성하게 돼 있습니다. 이번에 꼭 좀 반영될 수 있도록 예결위에서도 노력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던 그것인데, 5세 무상 교육이 25년 본예산 목적예비비에 금액까지 명시되어 있지요?

○교육부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그러면 지금 추경을 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목적예비비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쓰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추경은 빛내서 하는 것인데 왜 예비비를 안 쓰고 추경을 하시려고 하십니까?

○교육부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이것은 기재부하고 좀 더 협의를 해 봐야 되는데 목적예비비를 이것으로 쓰는 것을 그동안은 기재부가 많이 막아 왔습니다. 그리고 기왕 추경을 하니까 이게 민생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해서 추경에 넣어서 하는 게 더, 우리가 추경에 넣으면 목적예비비를 재해라든가 다른 쪽에 쓸 수 있으니까요.

○소위원장 조정훈 그런데 실은 지금 저희가 상임위 차원에서 수정하는 것인데 기재부가 수용할지 말지는 솔직히 모르시는 거지요?

○교육부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기재부는 반대 입장이라 정부 원안은 추경안은 저희들이 올렸거든요, 정부 예산안에 넣어 달라고. 그런데 기재부가 수용을 안 해서 못 올렸고요. 이번에 교육위 상임위에서 증액을 올려 주시면 예결위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결위 가서 추경으로 해결할지 목적예비비로 할지, 예결위 소위에서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임위 차원에서는 증액 수용하는 것으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전문위원 윤상열 16페이지, 15번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 관련해서는 내내역 사업인 교사 근무환경개선비로 사립유치원 교원 처우개선비는 인상이 되었는데 어린이집이 동결이 돼서 형평성을 위해서 그만큼 인상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으로 386억 2900만 원 증액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정부 측.

○교육부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정부 측 증액 전액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16번.

○전문위원 윤상열 16번은 표준보육비용 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야 되는데 이게 예산

이 편성이 안 돼 있는 관계로 이번에 3억 원을 증액을 해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교육부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조사비 증액의견을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전문위원 윤상열** 17번, 이것은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쪽 사업인데요.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은 내내역사업인 어린이집 처우개선비 명목에 대해서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형평을 위해서 어린이집 부분도 인상이 필요하다고 45억 8700만 원 증액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교육부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정부 측 증액의견 수용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김대식 위원** 정권이 바뀌니까 계속 수용이고 수용이고, 옛날에는 반대를 많이 하던데. 계속 수용이네.

(웃음소리)

○**소위원장 조정훈** 그렇게 말씀하셔서 반대가 이제 막 나올 것 같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전문위원 윤상열** 18번, 고등학교 무상교육 관련해서는 어제 법안소위에서 논의됐던 내용인데 지금 법은 실효가 됐고 예산도 편성이 안 된 상황인데 고등학교 무상교육 소요비용 일부를 지방에만 전부 맡기는 게 아니라 국가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6개월분 4723억 54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일단 19번까지 같이 해 주시지요.

○**전문위원 윤상열** 예.

19번, 학생건강 지원강화 관련해서는 학생 자살 원인 심층 분석·연구를 위해서 2억 원 증액 편성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정부 측 19번에 이견 없으시지요?

○**교육부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예, 이견 없습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위원님들도 19번은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제 끝났습니다. 부대의견만 정리하면 끝나는데요.

18번은 다 아시다시피 고교 무상교육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난 정부에서는 고교 무상교육을 교부금에서 처리하라는 입장이어서 거부권까지 행사했었고요. 이제 새로운 정부 들어와서 어제 법안소위에서 동 법안, 관련된 법안을 논의했습니다만 새로운 정부가 들어오고 교육부 수장 기재부 수장이 아직 임명 안 된 상황이기에, 그때 당시는 이 법안을 문정복 위원장 스스로 보류해서 계속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 측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고교 무상교육 이 예산에 대해서?

○**교육부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고교 무상교육과 관련해서 증액 교부를 통한 국가의 지원 여부는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관련 특례가 이미 일몰된 상황에서 특례 재도입하는 법안이 지금 현재 논의 중에 있고요, 법안 통과 시에는 예비비 지출할 수 있으나 추경 반영 여부 등도 함께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정부가 종합적으로 봐야 된다 하는 그 정도 스탠스를 갖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그렇고요.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준 위원** 이거 민주당 정부의 안이고요. 그동안에 우리 민주당에서 원래 주장했던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예산의 증액에 대한 필요는 충분히 상임위에서 얘기를 많이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일단 정부가 수용해 줬으면 좋겠고 또 특히 추경 예산에 대해서는 예결위에서 전체적인 조정이 있는 거니까 저는 소위에서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일단 올리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김대식 위원님은……

○**김대식 위원** 제가 예결위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가서 참고해 가지고 잘하겠습니다.

○**진선미 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김문수 위원** 만 5세 무상교육과 같은 논리로 일단 우리가 교육위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올려놓고 예결위라든가 거기에서 예비비로 하든 마지막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이렇게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현실적으로 이 문제는 여러 가르마를 타야 됩니다. 목적예비비에서 쓸지, 목적예비비에도 있고 이렇게 추경에서 올릴지 아니면 지금처럼 갈지. 그런데 실은 당정이 협의해서 결정되는 건데 아직 기재부와 교육부의 입장과 민주당의 입장은 저희의 입장으로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 드릴 수 있는 최대한의 호의는 이것을 표결하는 겁니다. 저희 국민의 힘 입장에서는 이것을 거부권 행사했던 예산인데 그냥 넘어가기에는 저는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표결을 해서, 표결까지는 제가 안건으로 올리겠습니다.

○**박성준 위원** 예, 그렇게 하시지요.

○**진선미 위원** 예, 그렇게 하시지요.

○**소위원장 조정훈** 그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고교 무상교육(1602-300) 5267억 원 증액에 찬성하시는 위원님들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그러면 증액에 반대하시는 위원님들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제석 8, 찬성 5, 반대 3, 이것으로 통과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증액 사안 그다음에 감액 사안은 됐고, 부대의견만 간단하게 검토하

고 의결하겠습니다.

부대의견이 있는데 부대의견을 제가 한번, 다 토론하기보다는 1분 정도 한 번 일독을 해 보시고요, 위원님들. 별로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박성준 위원 특별한 내용 없어요.

○소위원장 조정훈 그래서 교육부가 수용 여부만 결정하면 확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교육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기획조정실장 박성민 다 수용을 하는데 맨 마지막 ‘다음다음 회계연도까지 교부금을 조절하고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 이 부분을 ‘재정당국 및 시도교육청과 협의하겠다’ 이 정도로 조금 바꿔 주시면 어떨까 하는 의견 올립니다. 비슷한 얘기이기는 한데요, 왜냐하면 앞의 것이 다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소위원장 조정훈 그러면 강경숙 위원님, 김문수 위원님, 백승아 위원님, 동의 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 문구를 정확하게 하면 두 번째 줄에 ‘다음다음 회계연도까지 교부금을 조절하도록 재정당국과 시도교육청과 협의하고’, 그다음에 그 이하는 똑같이 하면 수용하십니까?

○교육부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예.

○소위원장 조정훈 알겠습니다.

김 위원님.

○김대식 위원 실장님, RISE 사업 600억 이번에 감액이 됐잖아요.

○교육부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예.

○김대식 위원 그래서 제가 예결위에서, 예결위 지금 소위인데 원래 교육부 안대로 1644억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이렇게 일단 질의를 해 갖고 넣었어요. 넣어 가지고 소위에서 이것을 토의하자 여기까지는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그것을 알고 대처를 해 주시라 이겁니다.

○교육부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그러면 이제 의결만 남았는데, 이게 전체를 의결해 버리면 저희가 무상교육 반대한 입장을 어떻게 기록에 남길 수가 있지요?

○수석전문위원 최선영 소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하실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이 있었다 하는 것을 서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조정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체 수정안을 의결하고 제가 전체회의 때 보고하면서 이 특정 항목에 대해서는 김용태 위원님, 김대식 위원님 그리고 제가 반대했다는 것을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고, 열심히 달려서 45분 만에 끝냈습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추가 발언하실 분……

○김대식 위원 이것 하나 내가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

종합의견, 고등학교 무상교육 있잖아요. 이것 지금 실질적으로 무상교육이 거의 다 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이렇게 예산 하려나. 실질적으로 되고

있는 거지요, 이게?

○김문수 위원 돈 부담을 누가 할 거냐.

○김대식 위원 돈 부담을 하는 것이 누구냐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손을 들었지만 이것은 우리 교육위원회 차원에서 교육부하고 한번 전체적인 의견을 나눠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부대의견에다.

○소위원장 조정훈 알겠습니다.

부대의견에 추가하자는 뜻이십니까?

○김대식 위원 아니, 아니에요. 제가 좀 궁금해서……

○소위원장 조정훈 나중에 추후 정책적으로 논의하자는 말씀이시지요?

○김대식 위원 예.

○소위원장 조정훈 그러면 심사를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1항 중 교육부 소관 2025년 추가경정예산은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반영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수정한 부분 다시 요약 잘하실 수 있지요?

○수석전문위원 최선영 예.

○소위원장 조정훈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부대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 결과와 부대의견의 자구 수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45분 동안 심사에 고생하셨습니다.

정부 관계자 여러분 협조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전문위원과 보좌직원 여러분 그리고 국회 관계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

○출석 위원(8인)

강경숙 김대식 김문수 김용태 박성준 백승아 조정훈 진선미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최선영

전문위원 윤상열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교육부

기획조정실장 박성민